

# “스님과 같은 시대에 살아 행복합니다”

## 법정 스님 입적부터 송광사 이운까지의 현장

3월 12일 오전 11시 43분. 법정 스님이 길상사를 영원히 떠났다. 생전 단 하루도 길상사에 머물지 않았던 스님은 11일 입적 후 딱 하룻밤을 이곳에서 보냈다. 스님은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다.

스님이 11일 오전 12시 50분 병원에서 도착한 이후 길상사를 떠날 때까지 한 하루, 그 시간은 매사에 간담명료했던 스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법정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 소식에 송광사 문중스님들은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다. 3~4년 전부터 폐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순천에서 급히 올라온 스님들은 행지실(行持室)을 찾았다.

행지실에 모셔진 법정 스님의 법구는 유훈대로 수의 대신 가사로, 관 대신 평상 위에 모셔졌다. 조문객들은 차분한 모습이였다. 다비식이 있기 전까지 길상사는 깨끗하고 조용했다. 스님의 유지에 따라 장례식 대신 순천 송광사, 불일암, 서울 길상사에 분향소만 마련됐다. 조화, 조문, 부의금도 없었다.

조문을 하고 나온 인경 스님(명상상담 연구원 원장)은 “법정 스님을 20대 때 처음 보았다. 스님은 후배들에게도 늘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삶의 표상같은 분이였다”며 <무소유>로 널리 알려졌지



법정 스님의 법구는 3월 12일 길상사 행지실에서 순천 송광사로 옮겨졌다. 법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입관을 하지 않고 운구가 진행됐다. 10명의 상좌들이 스님을 이운하고 있다.

만 <숫타니파> 등 불교초기 경전을 대중에게 알린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입적 4시간 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을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등 교역직 및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길상사를 찾았다.

이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등 교계 원로스님들과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관 스님은 “법정 스님은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영원히 국민을 이끌

어주고 채찍질을 가해주길 바란다”며 조의를 표했다.

정계에서도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고홍길 문화부장관,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박재환 국정기획수석, 주호영 특임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방문했다.

11일 저녁 8시쯤 방문한 박근혜 의원은 “스님의 글과 보도가 나오면 빼놓지 않고 읽었다”며 “인생의 지침이 되는 큰 가르침을 주셨다”고 추모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지도자였다. 무소유의 큰 가르침으로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며 애도했다. 김용옥 교수(순천대)는 “무소유의 이상적인 가르침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각 종교인들과 진각종, 태고종 등 종교와 종단을 초월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이진여 원불교 평창교당 주임교무는 “스님의 법문은 산 속에 파묻힌 말이 아니었다. 유행하지 않는 교언이었다. 나의 정신·수행의 멘토다”라며 “같은 수행자로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침례교회)는 “종교적인 것을 떠나 스님의 글은 너무 좋다. 육신으로 가득한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최고의 책들이었다”고 말했다.

천주교성북동성당에서 온 한 사제는 “스님의 삶은 단순했다. 맑고 깨끗하게 살았던 수행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강조했다.

이에 앞선 9일, 삼성그룹 홍라희 여사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스님을 문병하고 병원비 6200만원을 대납했다.

전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서울 정토회관, 대전 백제불교회관, ‘맑고향기롭게’ 부산 모일 열린 법당, 프랑스 파리 길상사, 뉴욕 사암연합회 등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다비 후 스님의 초재(4월 17일)에서 6재까지는 서울 길상사에서 봉행된다. 단, 49재(4월 28일)는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된다. 이에 앞서 길상사에서는 3월 21일 오전 10시 일요법회를 추모법회로 봉행한다.

스님은 늘 입던 가사에 쌓여 길상사를 사뿐히 떠났다. 중생들은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스님의 운구를 따라가 보지만 스님은 잡히지 않았다.

글=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to@hanmail.net

### 법정 스님의 말씀들

#### “많이 가진 것, 그만큼 많이 얽힌 것”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무소유>中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굵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산방한담>中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율림이 있다. 율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물소리 바람소리>中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몰라. 자신의 속일 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산에는 꽃이 피네>中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 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게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홀로 사는 즐거움>中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이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봄 여름 가을 겨울>中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긋하고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 줄 수 없다. 나는 내담게 살고 싶다.<오두막 편지>中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아름다운 마무리>中 정리=이상언 기자

## ‘무소유’에 감명 받아 세워진 길상사

### 짧은 역사 속 애뜻한 사연 담겨

### 김영한 여사 범명따와 이름지어

순천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는 서울 성북동 삼각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길상사의 역사는 매우 짧으면서도 그 설립계기가 특이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길상사는 1960~1980년대 말까지 최고급 요정의 하나였던 ‘대원각’ 자리에 세워진 사찰이다.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 여사는 1995년 7000여 평의 대지와 건물 40여동 등 1000억원 대의 부동산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했고, 스님은 시주 받은

요정을 길상사로 탈바꿈시켰다.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진 길상사의 내부는 숲속 미로를 연상케 하듯 선방과 요사채들이 숨어있다.

이 곳에는 <여승> <남신의주 유동 박 시봉방>으로 유명한 시인 백석과 그의 연인이었던 자야(子夜) 김영한의 애뜻한 사랑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때 ‘진향(眞香)’이라는 기생이었던 김영한 여사(법명 길상화, 1915~1999)는 함흥의 회식자리에서 당시 함흥 영생여고 교사를 하고 있던



이미타 부처님을 봉안한 길상사 본법당 정경. 기존의 ‘대원각’을 그대로 두고 범당으로 사용해 일반 사찰의 범당과는 다른 모습이다.

백석을 만났다. 이후 둘은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됐지만 백석의 부모는 기생인 김 여사와의 혼인을 반대했다. 1938년 백석은 만주로, 김영한은 서울에서 떨어져 지내게 되고 둘은 한국전쟁으로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됐다.

김영한 여사는 백석을 가슴속에 품

은 채, 1951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청암장을 인수해 대원각으로 개명했다. 김 여사는 대원각을 군사정권 시절 ‘요정정지’의 산실로도 유명한 국내 3대 요정 중 하나로 키웠다.

김 여사는 노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 받아 스님을 친견


한 뒤 회향을 발원했다. 김영한 여사는 법정 스님에게 당시 시가 1000억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하겠다고 절로 만들어주기를 청했다. 10년에 걸쳐 사양하던 법정 스님에게 김 여사는 거듭 시주를 받아주기를 요청, 1995년 그 뜻을 이뤘다.

1997년 12월 14일 요정 대원각이 길상사가 되던 날, 김영한 여사는 법정 스님에게서 염주 하나와 길상화(吉祥華)라는 범명판을 받았다. 길상사는 그녀의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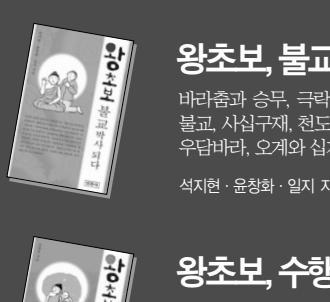
길상사 경내에는 극락전, 범종각, 지장전, 관세음보살상실, 길상화불자공덕비 등이 배치돼 있다. 시민운동 ‘맑고향기롭게’의 근본도량 길상사는 해마다 5월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나은 기자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주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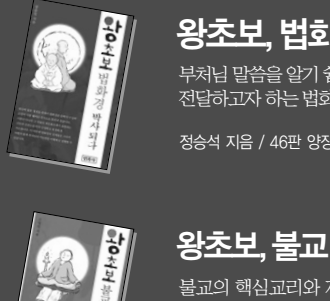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원스님 지음 / 46면 양장 / 304쪽 / 값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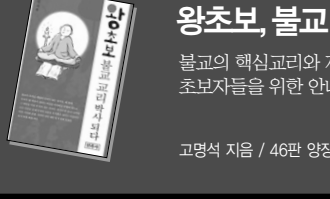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리종과 승부,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회와 불교, 사십구제, 천도제, 예수제, 기도 백팔만년, 음 마니 반배 음,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윤정화·일지 지음 / 46면 양장 / 352쪽 / 값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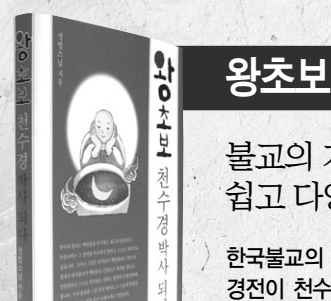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면 양장 / 320쪽 / 값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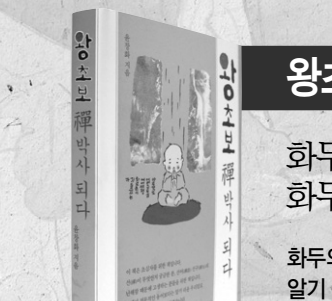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면 양장 / 278쪽 / 값 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면 양장 / 320쪽 / 값 9,5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면 양장 / 328쪽 / 값 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정화 지음 / 46면 양장 / 424쪽 / 값 11,000원